

대학교 졸업생의 음주와 흡연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 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를 하며, 흡연에 관하여는 17.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함. 음주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의 격차가 거의 없으나, 흡연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9.2배 높음.
- 회귀분석결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술을 주 3-4회 이상 마시는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1.2점 이상 낮아지고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면 2.3점 이상 낮아짐.
- 그러므로 대학과 정부는 학생의 음주빈도를 낮추고, 금연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 술과 담배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으로 사고 활동의 매개로 작용함. 대학생의 음주와 흡연 현황을 파악하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대학 졸업생의 음주 및 흡연 현황을 파악하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적절한 수준의 음주는 사회적 교류 및 일상생활의 활력 증대, 심혈관 질환 완화 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음주는 윤리적 판단 방해, 건강 악화, 교통사고 유발 등 사회적인 해악을 유발
 - 우리나라에서 중등학교 학생에게 음주와 흡연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대학생은 보통 19세 이상이 되어 법적으로 음주와 흡연이 허용됨.
 -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은 자신의 알코올 분해 능력과 관계없이 다수가 과도한 음주 문화와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흡연율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므로 대학 졸업생의 음주와 흡연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 자료: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

- 분석 대상 및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6GOMS)의 응답자
 - 연구 자료로 활용된 표본은 2015년 8월(2,769명)과 2016년 2월(10,055명)에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대학졸업생 120,824명을 2017년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임. 성별, 졸업한 대학의 소재 권역, 전공 계열 분포는 <표 1>과 같음.
 - 대학 성적의 만점 기준은 4.5점(86.77%)이 대다수이지만, 4.3점(9.46%)과 4.0점(3.77%)도 상당히 있음. 비교를 위하여 학점을 100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함.
-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간 평균 비교 (F -검정, t -검정) 및 대학 졸업생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 분석 내용: 대학생의 음주·흡연 현황과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
 - 대학생의 음주와 흡연 현황
 - 음주와 흡연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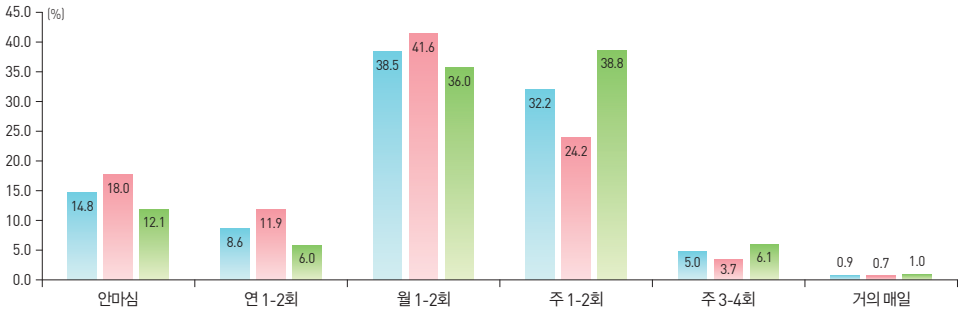
〈표 1〉 대학 졸업생 표본 구성(n=12,824)

구분		분포(명)	비중(%)	구분		분포(명)	비중(%)
성별	남자	7,050	54.98	전공 계열	인문	1,773	13.83
	여자	5,774	45.02		사회	2,623	20.45
대학 소재 지역	서울권	3,304	25.76		교육	922	7.19
	경기권	2,222	17.33		공학	3,681	28.70
	충청권	2,285	17.82		자연	2,073	16.17
	경상권	3,440	26.82		의약	598	4.66
	호남권	1,573	12.27		예체능	1,154	9.00

02 대학 졸업생의 음주 및 흡연 현황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은 음주자 비중이 높은 편임. 음주 횟수로는 월 1-2회가 가장 많고 성별의 편차가 크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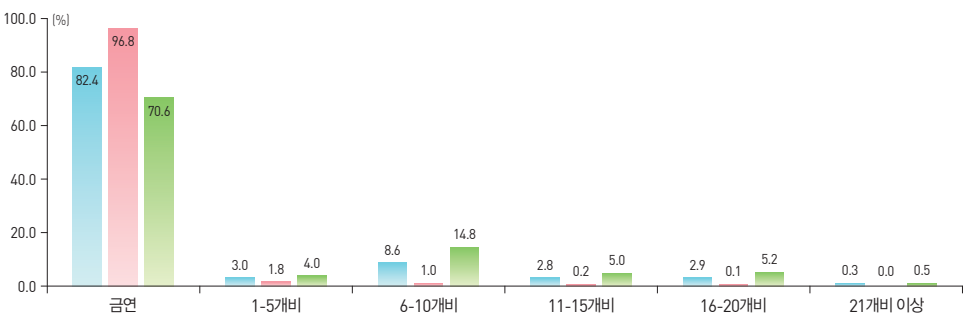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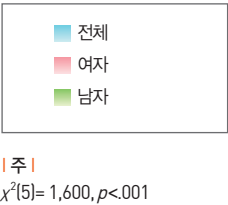
- 대학 졸업생은 비음주자에 비하여 음주자(85.2%)가 압도적으로 많음. 이 가운데 월 1-2회(38.5%)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 1-2회(32.2%)와 연 1-2회(8.6%)순임. 한편 주 3-4회 이상 음주자도 5.0%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의 평균 음주율(77.2%)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성별로 전혀 술을 마시지 않는 비음주자나 낮은 빈도의 음주자 집단에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주 1-2회 이상에서 남자의 비중이 여자보다 높음. 성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음주 빈도에서 여자는 월 1-2회이나 남자는 주 1-2회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1] 대졸자 성별 음주 빈도 분포

대학 졸업생은 비흡연자가 다수이지만 남자와 여자는 흡연 격차가 매우 큼.

- 대학 졸업생의 대다수(82.4%)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19세 이상 국민의 평균 비흡연 비율(81.9%)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 대학 졸업생의 흡연 양을 보면, 하루에 6-10개비(8.6%)를 흡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어서 1-5개비(3.0%)라고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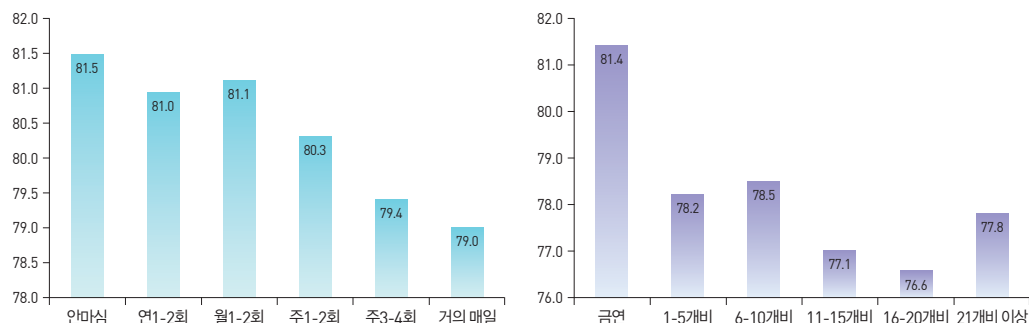
[그림 2] 대졸자 성별 흡연 빈도 분포

03 대학 졸업생의 음주·흡연과 학업 성적

| 음주는 빈도가 많을수록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흡연은 양과 관계없이 흡연 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음주빈도에 따른 학교 성적차이를 보면, 비음주집단 혹은 낮은 빈도의 음주집단의 성적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졸업생의 성적이 음주집단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그러나 연 1-2회 혹은 월 1-2회로 낮은 빈도의 음주집단은 금주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음주자 가운데 월 1-2회 마시는 응답자에 비하여 주 1-2회 혹은 주 3-4회 음주를 한다는 집단이 성적이 더 낮게 나타남.
- 흡연빈도에 따른 학교 성적차이를 보면, 비흡연자는 흡연자보다 학교 성적이 유의미하게 높음.
 - 담배를 피우지 않는 졸업생의 성적이 담배를 피우는 졸업자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음. 하루 피우는 담배의 양에 따른 성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 주 |
학점은 100점으로 환산함.



[그림 3] 음주·흡연의 정도와 학점

<표 2> 음주와 흡연 집단 비교 검정 결과

| 주 |
*=.05 수준에서 유의함.

구분	F-검정 결과	비교집단	t-검정 결과
음주와 성적	$F_{(5, 12,803)}=10.12^*$	연 1-2회 vs 안마심	$t=-1.56$
		월 1-2회 vs 안마심	$t=-1.47$
		주 1-2회 vs 안마심	$t=-4.71^*$
		주 3-4회 vs 안마심	$t=-5.12^*$
		주 1-2회 vs 월 1-2회	$t=-4.31^*$
		주 3-4회 vs 월 1-2회	$t=-4.62^*$
흡연과 성적	$F_{(5, 12,803)}=62.98^*$	1-5개비 vs 금연	$t=-7.07^*$
		6-10개비 vs 금연	$t=-10.42^*$
		11-15개비 vs 금연	$t=-9.29^*$
		16-20개비 vs 금연	$t=-10.39^*$
		21개비 이상 vs 금연	$t=-2.39$
		6-10개비 vs 16-20개비	$t=-0.76$

04 대학 졸업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른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 주 3-4회 이상 음주와 하루 20개비 이상 흡연이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분석됨.

- 음주와 흡연을 동시에 고려하면, 흡연이 미치는 성적하락이 뚜렷하게 발견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흡연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줌.
 - ※ 일반선형모형(OLS)으로 추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GPA(100점 만점)임.
 - <표 3>을 보면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술을 주 3-4회 이상 마시면 평점이 1.2점 이상 낮아지고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면 2.3점 낮아짐.
 - 이외에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조기에 취업을 준비한 졸업생은 학점이 높으나, 전공에 불만이 있거나 재학 중 일을 갖고 있었던 졸업생의 학점은 낮음.

〈표 3〉 대학 졸업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 요인

주 |
* $p < .1$, ** $p < .05$, *** $p < .01$.

각주 |
자연계열이 기준임.
졸업한 대학의 소재지를
말하여 충청권이 기준임.
1)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2) 졸업한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자 하는 경우
3) 대학원 진학 등 계속 공부함.
4) 대학을 선택할 때 졸업 후 직업
을 우선 고려한 경우
5)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
6) 목표로 하는 직업이 있음.

		모형I		모형II		모형III	
		B	S.E	B	S.E	B	S.E
인적 속성	남자	-1.962***	0.1893	-1.451***	0.1942	-1.446***	0.1953
	연령	-0.021	0.0293	-0.018	0.0291	-0.017	0.0292
	결혼	-0.106	0.4488	-0.171	0.4459	-0.178	0.4469
	부모와 동거	-0.809***	0.1594	-0.827***	0.1583	-0.843***	0.1588
음주	연간 1-2회	-0.506	0.3251			-0.448	0.3237
	월 1-2회	-0.172	0.2343			-0.091	0.2334
	주 1-2회	-0.424*	0.2442			-0.186	0.2442
	주 3-4회	-1.245***	0.3945			-0.772*	0.3953
	거의 매일	-1.846**	0.8338			-0.994	0.8380
흡연	1-5개비			-2.374***	0.4443	-2.315***	0.4453
	6-10개비			-1.746***	0.2815	-1.714***	0.2827
	11-15개비			-2.861***	0.4631	-2.810***	0.4643
	16-20개비			-3.136***	0.4575	-3.022***	0.4604
	21개비 이상			-3.142**	1.4574	-2.888**	1.4674
계열#	인문	1.170***	0.2861	1.225***	0.2846	1.214***	0.2849
	사회	1.688***	0.2567	1.740***	0.2555	1.737***	0.2556
	교육	0.379	0.3613	0.414	0.3595	0.407	0.3597
	공학	0.523**	0.2419	0.562**	0.2409	0.556**	0.2410
	의약	-0.65	0.4104	-0.679*	0.4085	-0.683*	0.4086
	예체능	1.249***	0.3219	1.340***	0.3206	1.343***	0.3207
대학 소재##	서울권	0.582**	0.2412	0.475**	0.2402	0.480**	0.2404
	경인권	0.431*	0.2563	0.415	0.2552	0.41	0.2553
	호남권	1.380***	0.2817	1.355***	0.2805	1.350***	0.2805
	영남권	0.348	0.2316	0.353	0.2305	0.34	0.2306
진로	직업계고 ¹⁾	-2.754***	0.3333	-2.672***	0.3319	-2.675***	0.3320
	전공불만 ²⁾	-2.055***	0.1574	-2.001***	0.1568	-1.995***	0.1569
	계속공부 ³⁾	2.882***	0.2212	2.835***	0.2201	2.826***	0.2203
	직업기준 ⁴⁾	0.672***	0.1612	0.668***	0.1605	0.661***	0.1605
대학 경험	추가전공 ⁵⁾	1.200***	0.2102	1.160***	0.2092	1.167***	0.2093
	휴학경험	-0.787***	0.1919	-0.728***	0.1911	-0.728***	0.1911
	졸업유예	-0.802***	0.1996	-0.798***	0.1987	-0.793***	0.1988
	재학 중 일	-1.192***	0.1658	-1.159***	0.1650	-1.146***	0.1652
취업 준비	목표 직업 ⁶⁾	0.559***	0.1635	0.543***	0.1627	0.543***	0.1628
	조기취업준비	1.441***	0.1634	1.391***	0.1624	1.392***	0.1627
	어학연수	1.322***	0.2293	1.301***	0.2283	1.303***	0.2283
	직업훈련	-0.441**	0.1862	-0.481***	0.1853	-0.471**	0.1854
	직업자격	1.321***	0.1635	1.290***	0.1629	1.293***	0.1629
	시험준비	0.824***	0.1993	0.783***	0.1981	0.779***	0.1985
부모소득		-0.031	0.0411	-0.025	0.0409	-0.021	0.0410
상수항		81.686***	0.8835	81.367***	0.8586	81.517***	0.8801
표본/R ² /F		12,677/0.0939/38.52		12,677/0.1017/42.10		12,677/0.1022/36.87	

05 시사점

- 우리나라 대학 졸업생은 월 1-2회 음주가 가장 많았고 음주 정도와 빈도에서 성별의 편차가 크지 않음. 특히 주 3-4회 이상 음주와 같이 음주 빈도가 높을수록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
 - 이는 대학생이 음주가 포함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으며 음주에 관대하고 장려하는 문화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과도한 음주는 건강과 학업의 위해 요소이므로, 대학생의 음주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대학 캠퍼스 내 금주 규정을 마련하고 캠퍼스 내 금주 문화를 강화해야 함.
- 흡연은 양과 관계없이 흡연자체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다른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회귀분석 결과도 흡연이 성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뚜렷한 것으로 분석됨.
 - 흡연은 학업 성적과 흡연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대학생의 금연을 위한 사회적인 캠페인 강화가 필요함.
 - 그러므로 대학과 정부는 학생들의 금연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대학 생활은 직업 및 사회세계로 전이하는 준비 단계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음주예절 및 금연에 대한 교육을 추진
 - 또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한 대학차원에서 교양 강좌 및 세미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공되어야 함.

박 천 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 화 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